

전통 장승문화 재해석 '추령장승축제'

순창군, 25~26일 전통공연
전시·체험·먹거리 등 풍성

순창군 북흥면 추령장승촌에서 '제29회 추령장승축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추령장승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박용길)가 주관하며, 북흥면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추령장승고을의 가을 이야기'를 주제로, 지역 고유의 전통을 되살리고 주민 공동체의 힘을 나누는 위해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25일에는 농악공연과 대금·기원제·제례봉행 등으로 문을 열며, 내외빈과 주민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초청가수 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이 펼쳐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벨리댄스, 난타, 국악인공연과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벨리댄스, 난타, 국악인공연과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벨리댄스, 난타, 국악인공연과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 북흥면 추령장승촌에서 '제29회 추령장승축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제가 마련된다.

박용길 추령장승축제 제전위원장은 "추령장승축제는 전통 장승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오셔서 전통문화의 향기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함께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추령장승축제는 단순한

전통 재현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며 "지역의 문화자산을 계승하고, 북흥면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추령장승촌은 순창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마을로, 매년 장승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개최

내달 4일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모두 함께 즐기는 예술축제

(재)완주문화재단은 오는 11월 4일,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대에서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를 개최한다.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한 축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예술축제를 지향하며, 공연·전시·체험·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예술이 '서로' 만나는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

개막 및 공연은 11월 4일 오후 2시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에서 열리며,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 공연을 비롯해 개막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운영된다.

전시는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장애 예술인의 다양한 장르 작품을 통해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전한다.

를 전한다.

또한, 장애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 형제의 실제 경험을 관객들과 나누는 '함께' 여서 가능한 공감토크콘서트가 11월 15일 오전 10시,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카페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축제를 준비하며, 완주 지역의 장애 관련 기관·단체와 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구성, 접근성 점검 등 전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실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의 밤, 피오리움' K-할로윈 컨셉으로 만나다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에서 오는 10월 24일~26일,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총 6일간 '남원의 밤, 피오리움(K-Halloween Nights)'이 열린다.

행사는 남원지역 경제활성화(로코노미)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원시와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피오리움, REPLUS사업단, 남원시관광협회의가 협력 추진, 이를 통해 가을철 남원 도심의 야간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한국적인 정취와 현대적인 미디어아트 감성을 결합한 'K-할로윈' 콘

셉트로 색다른 야간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피오리움 달빛정원 일원에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화려한 LED 라이트쇼를 비롯해 실력과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 퍼포먼스 미술, 감각적인 DJ 파티 등 흥겨운 야간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K-할로윈 베스트 드레서 콘테스트', 각테일바 운영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특히 피오리움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 할로윈 코스튬 착용 또는 축제 방문 인증



시 야간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해, 관람 후 현장 참여 인증을 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이며, 같은 기간 피오리움 일원에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거점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원의 밤이 문화와 예술, 디자인이 공존하는 가을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꿈의 무용단 '전주 프리크스' 정기공연

전주문화재단, 11월 2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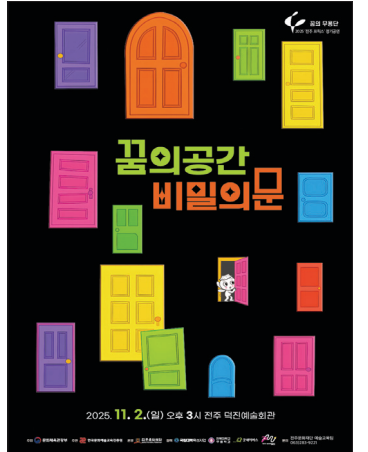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11월 2일 오후 3시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꿈의 무용단 '전주 프리크스'의 세 번째 정기공연 <꿈의 공간: 비밀의 문>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2025 프로젝트 <꿈의 공간: 엉뚱한 숭배객>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전주 팔복예술공장 내 다양한 공간에서 출발한 이번 작업은 공간이 꿈은 이야기를 꿈의 움직임으로 담담하고, 새로운 춤의 언어로 재해석한 장소특정형 무용(Site Specific Dance)이다.

단원들은 자신과 주변 세계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관찰하며,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예술 실험을 이어왔다. 관객은 무대와 영상, 공간을 넘나드는 입체적 연출을 통해 상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용 경험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 및 문의는 예술교육팀(063-283-9221)으로 하면 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팔복예술공장의 공간을 새로운 상상으로 풀어낸 이번 공연을 통해 단원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키우고, 함께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배워가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열정과 상상력이 담긴 무대에 시민여



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꿈의 무용단 전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무용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재단이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와 협력해 3년째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체류형 공공미술 투어프로그램 성료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체류형 공공미술 투어프로그램 '브리콜라주:그려모은미술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브리콜라주:그려모은미술관'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전북미술주간 확장판으로, 도내 7개 공립미술관이 함께 마련한 연대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탬프 투어와 1박 2일 체류형 공공미술 투어로 구성, 미술을 매개로 각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협력사업으로 확대의 공간을 이뤄냈다. 특히, 올해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전시 관람과 전시 연계 체험에 참여하고, 인근 관광지를 방문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경험했다. 또 1박 2일 공공미술 투어는 숙박을 포함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방문을 넘어 예술·관광 융합형 체험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달하미술관, 고경애 작가 초대전

정읍시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10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네 번째 지역작가 조명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경애 작가의 '내 삶에 미인美因을 품다' 전으로, 작가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한지 공예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신태인·연지·수성 세 곳의 달하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에게 한지는 단순한 전통 재료가 아닌, 삶의 아름다움과 감정의 흔적을 담아내는 우

리네 삶과 닮은 매개체다. 한지의 질감 위에서 번지고 겹쳐지는 색채는 시간의 흐름 속에 스며든 감정의 파동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삶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 속 작은 아름다움과 인연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휴관일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태인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연지·수성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보타나은 **KF**

같이. 그린. 농어촌

모두의 좋은 내일이 되다

KF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위해 농어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조성, 농가경영 안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넘어 글로벌 농어업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생산기반 국민의 주곡자금과 식량생산기반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 대단위 농업개발	농지은행 농가경영 안정과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 경영화생지원 - 농지연금 - 맞춤형 농지지원	지역개발·도농교류 농어촌개발, 도농교류로 활력 넘치는 파워(Power) 농어촌으로 디자인합니다 - 농촌개발 - 농산업 도농교류 - 어촌 종합개발	해외사업 100년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 기술용역 - 해외농업개발 지원 - 국제 농업협력	용수관리·에너지 농어촌용수관리전문 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 농업용수 관리 - 지하수·토양 오염정화 - 신재생 에너지·스마트팜
--	--	---	--	--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